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 9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3. 9.(화)	담당부서	시험인증정책과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3-870-5580)	담 당 자	허아영 연구사(043-870-5489)

K-방역 생활용품, 성능평가 길 열린다.

- 국표원, 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 구축 사업 착수 -

-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소비자 보호 기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**「K-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」사업에 본격 착수**한다고 9일 밝혔다.

○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**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평가 기반을 마련**하는 신규 사업으로,

○ 무분별한 항바이러스 제품과 광고로부터 **소비자를 보호**하는 것은 물론, **K-방역 생활용품의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**가 기대된다.

□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, 항균필름, 마스크 등 방역제품 수요에 대응하여 **항바이러스 제품의 개발과 시장 출시는 활발**하게 진행되고 있으나,

○ 항균시험과 달리 항바이러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여건은 매우 미흡하고 **공신력 있는 공인시험기관은 부재**한 상황이다.

< 참고 :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 >

구분	세균	바이러스
기본설명	일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	라틴어로 독을 뜻하는 비루스(virus)에서 유래된 이름으로, 아주 작은 크기의 감염성 입자
예시	콜레라균, 대장균, 살모넬라균, 포도상구균 등	코로나 바이러스,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
크기	보통 수 마이크로미터(㎛, 백만분의 1m)로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가능	보통 나노미터(㎚, 십억분의 1m)단위의 크기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가능 (코로나19 바이러스 : 80~100㎚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○ 이에,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K-방역 생활용품의 항바이러스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.

□ 이번 사업을 통해 국표원은 ①**항바이러스 시험장비 및 설비를 구축**하고 ②**시험평가절차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**하여, ③**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체계를 갖춰**나갈 계획이다.

○ 우선, 다양한 제품군의 시험서비스를 위해 **바이러스 보관·배양 시스템과 음압 클린룸을 포함한 필수 장비와 설비*를 구축**한다.

* 고성능 원심분리기(고농도 바이러스 농축), 전자현미경(바이러스 관찰), 유전자/단백질 검출장비(바이러스 검출), 유전체분석장비(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 모니터링) 등

○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평가절차를 정립하고 **한국인정기구(KOLAS)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**받음으로써 **국제무대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체계를 마련**한다.

○ 이를 위해, **올해 정부출연금 48억원을 투입할 계획**이며,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이 선정됐다.

□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"이번 사업은 **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프라를 구축**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"면서,

○ "이번 사업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여러 시험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**항바이러스 시험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**하겠다"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허아영 연구사(☎ 043-870-54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